

이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정자료



■ 매수 : 3매 ■ 사진 있음

웹하드(press.webhard.co.kr) ID/PW:press1

담당 :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

언론담당관	2133-6205	신문팀장	2133-6207	담당자	2133-6254
이준형		천세은		조항윤	

오세훈 시장, "주민 뜻 잘 모아준다면 주거환경 개선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 4일(월), 강서구 화곡동 모아타운 현장점검 -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월) 16시 강서구 화곡동 '모아타운' 추진 현장을 찾아 민원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로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주택 및 공영주차장과 같은 편의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강북구 번동(5만㎡)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 현재까지(8월기준) 70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다.
- 먼저 오 시장은 화곡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현황을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주거환경 상의 변화를 예로들며, 모아타운 제도의 취지를 현장에 나온 주민에게 덧붙여 설명했다.
- 이어 오 시장은 골목길, 건축물 등 사업대상지 구역 내 노후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 내에는 녹지면적이 부족하거나 주차난이 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재개발이 어려운 동네가 많다”며, “모아주택,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새로 (주택을) 짓게 되면 주거 환경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 내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주민들이 뜻만 잘 모아주신다면 수년 내에 주거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강서구 화곡동 모아타운 현장점검' 일정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강서구	16:05 ~ 16:15	10´ ○ 추진현황 보고 ※장소 : 까치어린이공원(강서구 보고) - 화곡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현황 보고	
	16:15 ~ 16:35	20´ ○ 현장점검 ※ 안내 : 강서구청장 권한대행	

※ 관련부서 : 전략주택공급과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2133-8231

□ 현장 사진



강서구 화곡동 모아타운 현장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의 4일(월) 오후 강서구 화곡동 모아타운 추진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모아타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강서구 화곡동 모아타운 현장점검

4일(월) 오후 강서구 화곡동 모아타운 추진 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골목길, 건축물 등 사업대상지 구역 내 노후 상태를 둘러보고 있다.